

홍콩 화훼 시장현황 및 수입현황

1

수입 현황

- 홍콩은 아열대 식물분포구역으로 강우량이 풍부하여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볼 수 있음/ 그러나,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홍콩에서 생산되는 화훼 식물의 수량은 극히 제한적이며, 이에 따라 화훼식물의 90%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
- 수입 화훼는 주로 중국본토, 네덜란드, 미국 등에서 유입되고 있으나, 최근 몇 년간 동아시아, 동남아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화훼식물의 늘어나고 있는 추세
- 수입화훼의 운송경로를 보면 네덜란드 등은 항공으로 운송되며 중국 본토로부터 수입되는 화훼식물은 곤명에서 직접 항공으로 수입되거나, 광둥 등을 거쳐 육로로 홍콩으로 수입되는 루트로 구분됨

2

소비현황

- 홍콩화훼시장에서 5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 화훼식물은 백합, 카네이션, 장미, 해바라기 등이며 현재 약 100여개의 도매상, 500여개의 소매상이 분포하고 있음
- 매년 5월에서 10월 사이는 휴일이 비교적 적어 비수기에 속하며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성수기로 크리스마스, 연말연시 및, 설 연휴, 발렌타인데이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매출이 비교적 높으며 선물용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분재 수입의 경우도 연말에 집중되는 편임

3

수입제도

- 홍콩은 자유무역지대로 화훼식물에 대한 수출입의 경우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홍콩 법제 제 2-7장 식물(수입관제 및 병충해통제) 조례 제 4조 규정에 의거, 홍콩으로 수입되는 식물은 우선적으로 Agriculture,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에서 발행하는 식물 수입증 및 원산지 당국에서 발행한 효력 있는 식물검역증명서가 반드시 필요. 식물관련 수입증 양식은 Agriculture,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사전신청은 필수임
- 수입자는 식물 수입증 신청서와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서를 함께 동봉하여 Agriculture,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로 우편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수입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 후 2일(근무일기준) 이후 수입증이 발급되며 별도의 소요비용은 없음

시 사 점

한국산 심비디움, 다육식물 등의 경우 홍콩 및 중국 광둥성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있으나 최근 중국정부 당국의 고급 난화 선물 규제 등으로 심비디움의 경우 시장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으나, 다만, 다육식물의 경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및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어 젊은 소비층의 환영을 받고 있음. 한국 화훼 품목의 홍콩 등 중국시장 확대를 위해 꾸준한 신규 품종 개발 및 화훼박람회 참가, 판촉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화훼 시장 트렌드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수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